

A silhouette of a cross on a rocky cliff against a sunset sky. The cross is positioned at the top center of the cliff. The sky is filled with soft, golden light from the setting sun, creating a warm and serene atmosphere. The cliff itself is dark and jagged, contrasting sharply with the bright sky.

오늘의 말씀

Scripture reading

민 13:25-33

Num. 13:25-33



민 13:25-33

Num. 13:25-33

25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사십 일 만에 돌아왔다.

26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.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,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 주었다.



민 13:25-33 Num. 13:25-33

**27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
설명하였다. "우리에게 가라고 하신
그 땅에, 우리가 갔었습니다. 그 곳은
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.
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.**



민 13:25-33
Num. 13:25-33

28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
백성은 강하고, 성읍들은 견고한
요새처럼 되어 있고, 매우 큼니다.
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
보았습니다.



민 13:25-33
Num. 13:25-33

28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
백성은 강하고, 성읍들은 견고한
요새처럼 되어 있고, 매우 큼니다.
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
보았습니다.



민 13:25-33 Num. 13:25-33

29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,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.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."



민 13:25-33 Num. 13:25-33

**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
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.**

**"올라갑시다. 올라가서 그 땅을
점령합시다.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
점령할 수 있습니다."**



민 13:25-33
Num. 13:25-33

**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
사람들은 말하였다. "우리는 도저히
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.
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."**



민 13:25-33

Num. 13:25-33

32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.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. "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 본 그 땅은,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.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,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."



민 13:25-33 Num. 13:25-33

33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.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.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 도메뚜기 같았지만,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."

설교

“미지의 새해를 맞는 눈(eyes)”



주님 품 안에서...
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